



유로존 보험회사 수익성 개선, 위협 요인은 저금리 지속

이정환 선임연구원

- 2012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보험회사들의 수익성과 자본 적정성 등 경영성과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2013년 1/4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¹⁾
 - 2012년 합산비율과 ROE는 전년대비 개선되었고 2013년 1/4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됨.
 - 보험회사 합산비율의 중간값은 2011년 98~99%에서 2012년 95~96%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 1/4분기에는 92~93%로 더욱 떨어짐.
 - ROE 중간값은 2011년 7~8%에서 2012년 8~9%로 2013년 1/4분기에는 9~10%로 상승함.
 - 2012년 자본적정성은 내부유보 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개선되었고 2013년 1/4분기에도 개선세가 유지됨.
 - 주당순수익(earnings per share)은 2011년 약 2% 수준에서 2012년 약 3% 수준으로 상승함.
 - 자산대비 자본 비율은 2011년 9~10%에서 2012년 12~13%로, 2013년 1/4분기에는 17~18%로 상승함.²⁾
 - 2012년 유로존 수입보험료는 거시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성장하였으나 2013년 1/4분기에는 경기침체가 심화된 일부 국가의 수입보험료 감소 영향이 커지면서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둔화됨.
 -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성장률의 중간값(median)은 2011년 -2~-1%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2~3%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2013년 1/4분기에는 0~1%³⁾로 낮아짐.

- 언더라이팅 수익은 자동차, 해상 및 재난 보험의 보험료 상승, 재난 재해 감소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고 투자수익은 시장 수익률 개선, 대손상각 감소, 고정자산 매각 이익 발생으로 개선됨.

1) 은행권은 18개 대형은행 대상이며, 보험산업은 유로존 전체 수입보험료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9개 대형보험회사 대상.
2) IFRS 회계제도에 기인하여 자산대비 자본비율이 상승한 측면도 있음. 시가평가가 이루어지는 자산은 낮은 국채 수익률로 가치가 부풀려진 반면 부채는 시장가치로 평가되지 않아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연간성장률(percentage change per annum).

- 재난 재해 감소, 대재해보험 수요 증가 및 보험료 상승, 자동차 및 해상 보험료 상승 등은 손해보험 회사의 언더라이팅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시장수익률 개선, 대손상각 감소, 2012년 4/4분기 발생한 고정자산 매각 이익은 투자수익을 증가시켰음.
 - 2012년 4/4분기 허리케인 샌디로 2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손실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ECB는 2013년 유로존 보험회사 경영성과도 2012년과 같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금리 지속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함.

- 전문가들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5월 중순까지 보험회사 신용등급과 주당순이익 추이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2013년 보험회사 경영성과는 2012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2012년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보험회사 CDS 스프레드의 중간값은 140~170bp 내에서 큰 변동 없이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주당순이익 중간값은 같은 기간 동안 상승세를 보임.⁴⁾
 - 은행권의 무리한 저축상품 경쟁 자제⁵⁾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수익을 제고할 것이며, 대재해 보험, 자동차 및 해상 보험 보험료 상승은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성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은 거시경제 악화와 저금리 환경이 보험회사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경기침체 지속은 보험수요 둔화의 원인이며 저금리 환경은 보험회사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낮은 투자수익률로 보험회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비핵심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임.

(ECB(2013. 5), Financial Stability Review)

4) 유로존 보험회사 주당순이익은 2012년 4/4분기 현재 3~4유로를 기록하였으며 ECB는 2013년 4/4분기에도 주당순이익이 3~4유로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5) 은행의 자금조달이 순조로워짐에 따라 은행의 무리한 저축상품 경쟁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